

# 화려함 보다는 소소함 농치기 쉬운 일상 여유

### 정인선 개인전...이화갤러리

### 4년 작업 작품중 37점 엄선

### “많은 사람 행복 느꼈으면”

때론 화려한 것보다 소소함이 더 끌릴 때가 있다. 길을 걷다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담벼락에 피어난 꽃과 자연풍경과 풍광들. 자칫 농치기 쉬운 일상을 둘러보면 잃어버린 여유가 새어나온다. 이런 일상 속 여유를 글이 아닌 캔버스에 기록하는 작가의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이화갤러리에서 지난 5일 개막한 정인선 작가의 개인전이다.

정 작가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이기에 공개할 작품을 신중하게 선별했다. 지난 4년간 작업한 작품은 수만 60여 점에 달하지만 이 중 37점을 엄선했다.

정 작가는 개인전을 열 때마다 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한번 선보인 작품은 다시 만나 보기 힘들다. 개인전을 열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정 작가의 욕심이다. 그렇기에 정 작가에게 개인전을 연다는 것은 큰 의미다.

중등 미술교사를 10년간 하다 화가의 꿈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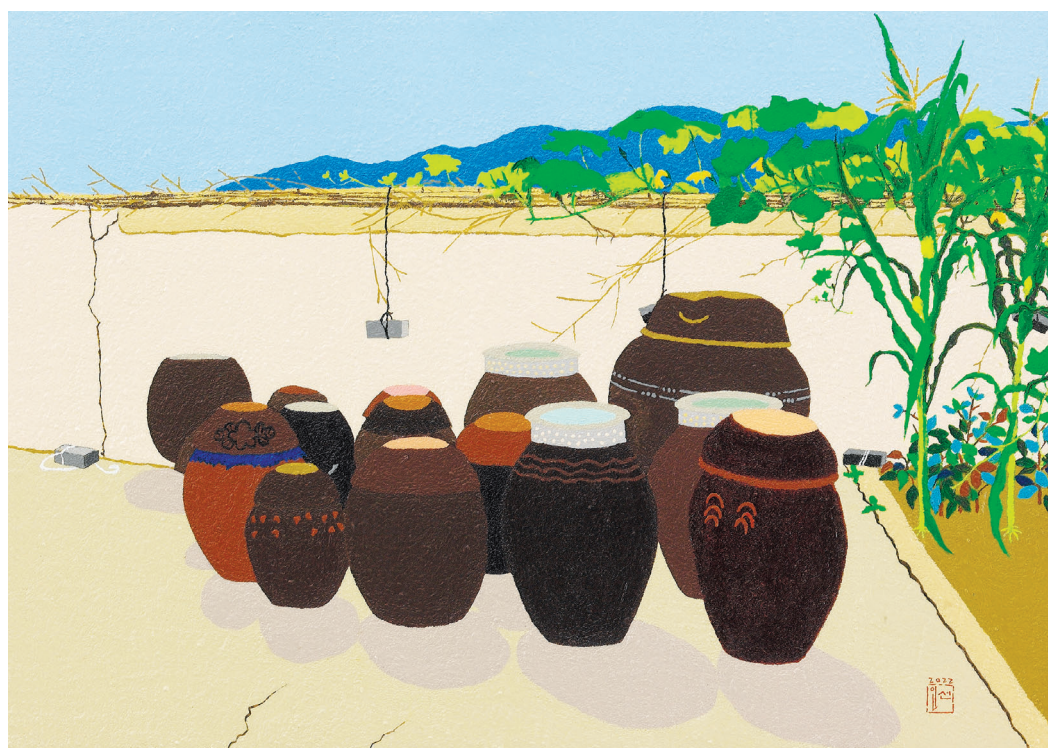


정인선 '장날 복을 담아왔다'

여가기 위해 퇴직했다. 정 작가의 작품을 살피다 보면 바쁜 현대사회 속의 치열함에서 빠져있었던 여유마저 되살아난다. 그림의 주제는 정 작가의 일상이다.

제주도와 전남지역 그리고 광주 동명동을 오가며 거리에서 봤던 풍경들. 담벼락 틈에서 피어난 나팔꽃과 물이 빠져 해변가에 덩그러니 놓인 배 한 척, 벽 아래 진열된 장독대, 카페 인테리어 소품들. 유심하게 보면 아름답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풍경이다. 정 작가는 잘나의 순간에서 뿜어져 나온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기록했다.

갤러리에 걸려 있는 나무쟁반 위에는 음식이



'함께한 세월'

아닌 캔버스가 올려져 있다. 그런 그림을 둘러보면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한 상을 대접받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골동품에서 볼 수 있는 '복' 글자가 쓰인 전통 보자기가 정반 위에 올라가 있다. 작품이름마저도 '복을 담다'이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한 작가는 자신이 재구성한 105개로 분할된 원고지 칸에 글이 아닌 그림을 채우기도 했다. 칸마다 채워진 그림은 골동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 문양들이다. 음표와 함께 그려진 작품들은 작가가 음악을 듣고 길을 걷다 발견한 풍경들로 그림에서도 율음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번 작품활동을 하면서 작가는 노란색에 빠

졌다고 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기운 때문이다. 노란색 아크릴 물감이지만, 제작 회사마다 표현됨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작가는 각각의 색을 활용해 여름날의 해변가 담벼락에 사다리가 걸린 카페, 한옥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핀 마삭줄 꽃 등을 구현해 냈다. 두툼하고 입체적인 유희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캔버스에 혼합재료와 나이프로 원하는 매력적인 바탕을 만든 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소재를 채색하기도 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문화 브리핑

◇남겨진 단서를 추적하고, 사건을 해결하라 =8일~2월 5일 국립광주과학관

◇ACC 국제 공동 창·제작 시범공연 로제타-광주=13~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시)

◇김혜령 플루트 독주회=13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하모나이즈 콘서트 The SHOWCHOIR-여수=13일 오후 7시 30분 GS칼텍스 예술마루

◇2023 차&공예&설맞이농특박람회=13-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B,C

◇2022-23 이무진 전국투어 콘서트 '별책부록' =14일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반짝반짝 달님이 버블버블 마법의 솜시탕 =14일 광산문화관(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대한민국 웨딩페어=14~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A

◇마미의 하루-아마쉬 킬트=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베이스스 플랫 앙상블 정기 연주회=15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북크레이션 작심일년=15-31일 서구공공도서관 아동실

## 이건희 회장 기증품 기본 정보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공개

고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5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e 뮤지엄'을 통해 '고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기본 정보를 공개했다.

기증품 총 1만797건, 세부적으로는 2만 3,317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소장품 번호로 '건희'를 검색하면 각각의 명칭, 재질, 크기 등을 알 수 있다.

e 뮤지엄에서는 '이건희 기증품'으로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기증품인 '정선 필 인왕제색도' (鄭善筆仁王霽色圖)를 찾아보면 겸재 정선(1676-1759)이 조선 시대에 그렸으며, 국보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기증의 깊은 뜻을 기리고 문화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동언 '연둔리 숲정이'

## 양동언 작가 한국화 초대전

전남대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가 1월 한달간 한국화가 양동언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출품작은 진경산수의 화산적벽, 운주사, 고인들, 연둔리 숲정이, 백야산, 규봉암, 세량지, 쌍봉사, 영벽정, 송석정 풍경 등이다.

작품들은 수묵담채화 이면서도 오랫동안의 숙련이 느껴지는 먹과 붓의 운용으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감흥을 안겨준다. 먹에서 먹이 빠지고 색에서 색이 빠지는 작업은 오랜 습작과 고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양 작가는 화산 출신으로 주로 고향의 산하를 화폭에 담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화산 8경을 실사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나라 기자

## 5·18 전북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큐 제작

### 텀블벅서 크라우드 펀딩 진행

1980년 5월 전북 청소년들의 시위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중이다.

8일 독립제작사 스튜디오 메이(제작사 오월)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감독 김중관이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신흥고 민주화운동에 관해 취재중이다.

그는 2020년 3월 단편버전 '나와 5·18, 꺼지지 않는 불꽃' 온라인 시사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스튜디오 메이 대표다. 불꽃 다큐멘터리 기획 이후 K-DCOC 퍼스트컷 완성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 편집 컨설턴트 에스퍼 오스몬드(덴마크)의 편집 컨설팅을 받고 있고, 추가작업을 위해 펀딩을 진행중이다.

'불꽃' 프로젝트는 현재 재편집 및 추가취재



'불꽃' 이미지

/제작사 오월 제공

를 하고 있다.

스튜디오 메이는 추가 취재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으는 중이다. 총 527만원을 목표로 텀블벅(https://tumbbug.com/fireflower)에서 후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감은 오는 22일이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홈술이 좋아요"...외식업계 몰상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